

# 石油情勢의 變化와 油價政策方向

許 南 薰

(動力資源部·資源政策室長)

## I. 國際石油市場 動向과 展望

### 1. 最近의 國際市場 動向

#### 가. 需給動向

原油需要는 消費國의 장기적인 景氣沈滯와 油類消費節約등으로 81년중 79년對比 9.8%가 감퇴되었으며, OPEC가 82年 3月19日 제63次 OPEC特別會議 以後 生産上限線을 설정하는 등 供給過剩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先進國의 지속적인 재고방출 등으로 80年 以後 계속 供給過剩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供給過剩 추세는 83년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 ① 금년 下半年부터 世界經濟가 回復될 기미를 보일것이나, 本格的인 景氣回復은 83年 下半年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 ② 最近 數年間의 石油消費減少가 景氣沈滯에 따른 需要減退보다는 에너지 消費效率 提高, 代替에너지 使用增大등에 힘입은 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설사 景氣回復이 나타난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石油需要增大는 별로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③ 西方石油會社들의 在庫放出(82年 7月 약



200만 B/D수준)도 세계적인 高金利 추세로 在庫油에 대한 管理維持費 부담이加重되고 原油 價格이 안정됨에 따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展望될 뿐 아니라,

#### ④ OPEC 產油國들이

많은 過剩生産施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을 사우디, 쿠웨이트 등 온건파國가들이 保有하고 있어 이란·이라크戰의 激化 등 局地戰에 따른 石油生産減少가 나타날 경우, 그 減少分은 이들 온건파國가들의 生産增大로 즉시 보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⑤ 北海, 멕시코등 非OPEC 產油國 生産이 增加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이다.

83年中 自由世界全體의 石油消費는 景氣回復에 힘입어 82年보다는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增加幅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82년의 原油供給構造를 살펴보면, 非 OPEC 產油國들의 產油量은 油價引下등에 힘입어 계속 增大되고 있으나, OPEC의 產油量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82年中 OPEC의 產油量은 81年에 비해 15%以上 줄어든 하루 1,900~2,000萬배럴 水準에 머물 것으로 보여 OPEC는 1,100~1,200萬배럴/日에 달하는 過剩生産

施設을 保有하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금년 4/4分期의 OPEC產油量은 하루 2,000~2,100萬배럴로 豫想되는데 이는 금년 上半期의 하루 平均產油量 1,820萬배럴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 4月 OPEC가 豫想한 2,300~2,400萬배럴에는 크게 못미치는 水準이다.

이와같이 OPEC의 生産量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展望되는 理油는,

- ① 非OPEC產油國들이 油價引下를 통해 石油輸出을 크게 增大시키고 있고,
- ② OPEC產油國에 크게 의존해 온 石油輸入國들이 石油의 安定的인 供給確保를 위해 政治情勢가 不安한 OPEC國家들로 부터의 石油輸入을 기피하고 導入先을 多邊化하고 있으며,
- ③ 대부분의 OPEC國家들은 주로 長期供給契約에 의해 石油를 輸出하고 있는데, 供給過剩으로 石油購入이 용이해지자 石油輸入國들이 보다 有利한 現物 市場에서의 石油輸入을 增大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 價格 動向

이러한 供給過剩狀態를 반영하여 82年들어 英國, 멕시코등 非OPEC產油國과 이란등 OPEC產油國들의 油價가 引下되었으며, 또한 지난 3月の OPEC긴급임시총회에서 油種間 品質差에 따른 價格差를 축소시키기로 決定함으로써 OP

EC平均公示價가 上半期中에 배럴당 33.5달러로 引下됨으로써 81年 12月에 비해 2.9% 引下되었다. 대부분의 經濟展望機關들은 이같은 油價引下 추이가 지속되어 83年中에도 82年 水準에서 더 떨어지거나 적어도 이 水準에서 유지될 것으로 豫想되며, 84年以後에야 供給過剩이 어느정도 해소되어 油價가 上昇勢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82年 上半期 以後의 油價引下幅은 이같은 一般的인 展望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最近들어 사우디가 油價를 배럴당 2달러 정도 引下할 것이라는 說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가 公示價를 引下할 것으로 豫상하는 이유는,

- ① 사우디의 現產油量이 이란, 리비아, 베네

〈表-2〉 OPEC市場監視委員會의 自由世界石油需給展望 (單位: 萬배럴/日)

|             | 1/4分期 | 2/4分期 | 3/4分期 | 4/4分期 | 82年全體 |
|-------------|-------|-------|-------|-------|-------|
| 自由世界需要      | 4,774 | 4,406 | 4,428 | 4,837 | 4,612 |
| 시나리오 I (A)  |       | 4,321 | 4,343 | 4,749 | 4,546 |
| 시나리오 II (B) | 2,364 | 2,398 | 2,422 | 2,424 | 2,403 |
| 非OPEC供給(C)  | 2,407 | 2,008 | 2,006 | 2,413 | 2,209 |
| OPEC供給必要量   |       | 1,923 | 1,921 | 2,325 | 2,143 |
| A-C         |       |       |       |       |       |
| B-C         |       |       |       |       |       |

〈資料〉日本工業新聞社, Energy, Jul., 1982

〈表-1〉 自由世界 石油需給推移 및 展望

(單位: 千배럴/日)

|       | 1980   | 1981   | 1982 展望 |        |        | 1983 展望 |        |        |
|-------|--------|--------|---------|--------|--------|---------|--------|--------|
|       | DRI    | DRI    | DRI     | WEFA   | OECD   | DRI     | WEFA   | OECD   |
| 〈消費〉  |        |        |         |        |        |         |        |        |
| 自由世界  | 48,782 | 46,168 | 45,085  | 41,700 | 45,800 | 46,231  | 43,070 | 46,900 |
| 先進國   | 38,338 | 35,708 | 34,364  | 30,400 | 34,500 | 34,809  | 31,110 | 34,900 |
| 開途國   | 10,955 | 10,942 | 11,179  | 11,300 | 11,300 | 11,877  | 11,960 | 12,000 |
| 〈供給〉  |        |        |         |        |        |         |        |        |
| 自由世界  | 48,440 | 45,625 | 44,252  | 40,220 | 44,300 | 46,114  | 43,200 | 46,900 |
| OPEC  | 27,665 | 23,417 | 22,105  | 19,200 | 20,700 | 23,361  | 22,000 | 23,800 |
| 非OPEC | 20,775 | 22,208 | 22,147  | 21,020 | 23,600 | 22,753  | 21,280 | 23,300 |
| 在庫變動  | 342    | -543   | -833    | -1,480 | -1,500 | -117    | 130    | 0      |

〈資料〉DRI (Data, Research Institution) International Energy Bulletin, Feb. 198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 1982. OECD, Economic Outlook, Jul., 1982

수엘라 등의 生産増大로 하루 550萬배럴 以下로 떨어져 지난 3월에 사우디가 決定한 最大産油量 700萬배럴 뿐만 아니라 사우디 經濟의 安定的인 成長에 요구되는 必要産油量 670萬배럴 水準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 ② 사우디産 輕質油의 現物價格이 公示價 34달러/배럴보다 2달러가 낮은 32달러/배럴에 머물고 있고,
- ③ 앞으로도 英國, 멕시코 등 非OPEC産油國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OPEC産油國의 公示價引下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사우디의 公示價 引下壓力은 더욱 増大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우디가 公示價를 引下할 경우, OPEC 會員國間에 價格引下競爭이 나타나 OPEC 平均 公示價는 보다 大幅的으로 引下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非OPEC産油國의 추가적인 油價引下도 나타날 것으로 展望된다.

## 2. 世界石油需給 및 價格展望

世界經濟는 82年 下半期 以後 回復局面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原油需要도 83年 以後 완만한 增加勢를 維持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自由世界의 實質經濟成長率은 83~86年間 年 3.4%水準에 이를 것으로 美國의 瓦튼 經濟豫測 機關(WEFA)은 展望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石油需要는 85년까지 비교적 빠른 水準으로 回復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79年 水準에는 미치지

〈表-3〉 世界 石油需給展望

(單位: 백만B/D)

| 구분 \ 年 度                | '81  | '82  | '83  | '84  |
|-------------------------|------|------|------|------|
| 需 要                     | 46.8 | 46.2 | 49.0 | 51.5 |
| O E C D                 | 35.4 | 34.6 | 35.6 | 36.5 |
| 기 타                     | 11.4 | 11.6 | 13.4 | 15.0 |
| 非OPEC공급 <sup>1)</sup>   | 22.6 | 24.0 | 24.3 | 25.7 |
| OPEC원유필요량 <sup>2)</sup> | 24.2 | 22.2 | 24.7 | 25.8 |

註1) 공산권으로 부터의 純輸入包含

註2) OPEC生産能力: 3,500B/D

못할 것으로 보인다.

反面 非OPEC生産原油가 꾸준히 增加할 것으로 보이고, 소련이 86年 以後 原油輸入國으로 전환될 加能性에 대하여 美 CIA등이 수정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多少의 需要增加에도 불구하고 原油需給은 安定勢를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東情勢에 持續的인 不安要因이 尚存하는 點등을 감안하여 第3次 石油波動이 닥칠 것이라는 見解도 있으며, 이러한 見解를 辟력하는 이들의 論點을 살펴보면, 中東地域의 政情不安 以外에도 대략 다음과 같은 要因으로 大別된다.

- ① 石油需要의 減退는 現在의 世界景氣 不況 때문이며, 經濟가 回復되면 다시 종전의 水準 또는 그 以上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며,
- ② 高油價는 長期的인 石油需要, 특히 世界 原油消費의 2/3를 차지하는 난방용 燃料의 수요를 잠식시킨다고 하나, 原油의 主要 代替源은 人工燃料이며, 現在 석탄의 液化등 人工燃料의 開發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③ 또한 OECD의 石油需要는 減少한다 하더라도 低開發國의 石油需要는 계속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또한 다음과 같다. 즉,

- ① 日本은 最近 GNP는 成長하면서도 石油消費는 減少되고 있으며,
- ② 原油의 주요 代替源으로 보다 싼 石油代替源이 많이 등장, 實用化되어 있고,
- ③ 低 開發國의 石油需要의 增加率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判斷이다.

이러한 中·長期 世界原油市場의 動向은 쉽게 捉摸할 수 없으나, 당분간 石油需給은 均衡 또는 供給過剩狀態를 維持할 것이라는 것이 大多數의 見解이다.

이러한 需給狀況을 감안한 世界原油價格 展望을 전문기관 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 II. 油價政策方向

이러한 世界原油市場의 安定勢가 油價政策에

상당히 큰 變數로 作用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合理的인 油價政策을 推進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前提條件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우리 經濟規模의 質的 量的 成長에 따라 20여년간 統制價格制를 維持함에 의한 여러 가지 効果들이 退色되어가고 오히려 副作用이 發生하고 있는 現實이 훨씬 더 重要한 變數인 것이다.

〈表-4〉 메이저의 自由世界 石油需要展望 (單位: 백만B/D)

| 사 명 \ 년 도 | 1985년 | 1990년 |
|-----------|-------|-------|
| TEXACO    | 52    | 54-55 |
| SOCAL     | 49.3  | 51.3  |
| B P       | 50-51 | 51    |
| SHELL     | 48    | 50-52 |
| EXXON     | 54    | 55    |
| 平 均       | 50.7  | 52.5  |

〈註〉 5개사 모두 GNP 성장율을 2.5-3.5%/년 기준  
 〈資料〉 Asian Wall Street Journal, '82.1.29

따라서 本 欄에서는 現行 油價管理制度를 評價하고, 그 合理的인 改善方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 1. 油價管理 制度의 評價

### 가. 石油政策의 基本課題

石油政策의 基本課題는 需給安定과 價格安定이라는 이율배반적인 政策目標의 調和를 모색하는데 있고, 이러한 基本課題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消費地 精製主義의 基調를 維持하면서, 市場 競爭原理에 입각한 油價管理制度를 導入하고 政府의 直接개입 및 보호를 축소하여 民間企業의 창의성을 極大化하고, 政府는 最終的이고 最少限의 統制 및 調整機能만 留保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그 間의 經濟與件 變化

이러한 觀點 위에서 現行 油價制度를 評價하기 위하여는 제반 經濟與件을 살펴보아야 하겠

〈表-5〉 油價 推移 및 展望 (年 平均)

|                      | 1980  | 1981  | 1982 展 望 |       |       | 1983 展 望 |       |       |
|----------------------|-------|-------|----------|-------|-------|----------|-------|-------|
|                      |       |       | DRI      | WEFA  | OECD  | DRI      | WEFA  | OECD  |
| OPEC 平均 公示 價 (\$/배럴) | 30.87 | 34.50 | 32.96    | 33.30 | 33.90 | 33.93    | 33.70 | 33.70 |
| 上 昇 率 (%)            | 65.3  | 11.8  | -3.69    | -3.9  | -3.42 | 2.93     | 1.3   | -0.5  |

〈資料〉 DRI, European Bulletin, Jul., 198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 1982.  
 OECD, Economic Outlook, Jul., 1982.

〈表-6〉 主要기관인 原油價格展望

(단위: \$/배럴)

| 기관명 \ 년 도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90  | 비 고             |
|---------------|-------|-------|-------|-------|-------|-------|-------|-----------------|
| IBRD          | 29.80 |       |       |       |       | 50.30 | 70.30 | 실질가격 년 3%상승     |
| 日本에 너지 經濟 研究所 | 30.00 |       |       |       |       | 48.30 | 85.10 | 년평균 10-12%상승    |
| WEFA          | 31.00 | 34.60 | 33.90 | 33.70 | 42.00 | 47.00 | -     | 년평균 10.6%상승     |
| Henley Centre | 30.00 | 33.00 | 36.30 | 42.47 | 49.05 | 56.41 | -     | 년평균 13.5% 상승    |
| 일본창가대학        | 32.00 |       |       |       |       | 52.70 | 87.30 | 년평균 10.6% 상승    |
| 美國에 너지省       | 33.89 |       |       |       |       | 33.00 | 49.00 | 실질가격기준 '80년달라가치 |

다.

우선,

- ① 그동안 우리 經濟의 質的 量的 擴大의 成長으로 經濟運用의 基本骨格이 民間主導型 經濟運用基調로의 轉換이 불가피해졌고 價格管理도 事前規制에서 事後指導로 轉換되고 있으며,
- ② 사회환경이 開放되고 國際化되어 통상활동 및 經協活動이 擴大되고, 民間交流가 增大되었으며, 問題解決 方式도 利害当事者間의 妥協調整에 의한 方式으로 發展되어 能率, 效用 및 창의성의 極大化를 도모하고 있으며,
- ③ 開發年代의 政府機能이 退色되고 狀況變化에 신속하고 신속적인 対応能力이 微弱하여 政府機能의 축소 調整이 불가피해졌다는 點이다.

#### 다. 現行油價 制度의 反省

1964年 國內石油製品 生産 以來 完全 政府統制價格 制度로 일관되어 온 現行 油價制度는 精油産業을 設立한 外國기업의 不當價格 調整이 主目的이었다.

지난 20여년간 이러한 制度는

- ① 독과점下에서의 價格의 不當引上을 防止하고,
- ② 價格 變動時點 調整으로 靜態的 물가관리를 可能하게 하였으며,
- ③ 취약산업의 보호및 民生安定에 기여하고
- ④ 經濟性을 배제한 原油處理 가능으로 國際石油 逼迫時期를 극복하는 등의 效果를 達成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精油産業의 成長 및 제반 經濟 與件 變化로 이러한 制度는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으며, 이러한 制度를 長期 運用해 나갈 경우, 問題點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즉 ① 民間企業의 損益에 정부가 直接 介入함으로써 競爭原理에 입각한 企業경영이 소 홀해지고, 政府統制에 安存하여 自體 經營 合理化 및 原價節減노력이 不足해지며,
- ② 製品價格을 政府가 直接 決定함으로써 價

格調整의 경직성으로 인한 一時大幅 調整이 불가피하여 經濟에 의 충격이 크며, 油 種間 價格構造의 왜곡에 따라 長期的인 油 類需給 安定을 低害하고, 揮發油, 아스팔트 등의 施設투자 的 不均衡을 초래하여 資源의 効率的 配分을 低害할 우려가 있고,

- ③ 또한 消費者價格까지 政府가 直接 決定함으로써 流通市場에서도 競爭原理 介入이 極小化되고, 消費者價格의 均一決定으로 國內 全體輸送費의 增大가 나타나고 있다.

#### 라. 現行油價 制度의 評價

이를 綜合 감안해 보면,

現行 油價制度는 政府主導型 開發年代이며, 精油産業의 初期段階인 60~70年代에는 基礎에 너지 價格의 一時的 安定과 메이저에 의한 精油 産業의 폭리규제 等に 기여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제반 與件變化, 즉, 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른 民間 主導의 經濟運用 基調로의 轉換, 메이저의 退潮, 國際石油市場의 급격한 變化, 變動換率制 및 輸出入 自由化 擴大등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 行에 따라

- 精油産業의 政府依存度 심화 및 그에 따른 節減可能한 費用의 낭비.
  - 國際 환경변화의 対応力 微弱
  - 石油의 長期, 安定的 需給에 低害등의 構造的 모순과 副作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精油産業 經營主體의 책임 經營 意識 고취와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經濟의 能率과 效率性 제고, 産業의 均衡의 發展과 對外 經濟力 強化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現行 油價制度 인 政府의 直接規制方式에서 間接 規制方式으로 의 轉換이 시급 불가피하다고 評價되는 것이다.

## 2. 油價管理 制度의 基本方向

### 가. 우리의 與件과 制約

#### (1) 海外部門

이러한 基本骨格下에서 구체적인 改善方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現在 與件이 어떠한

지 살펴볼 必要性이 대두된다.

우선 海外部門은

- ① 競爭여지가 거의 없는 原油 確保와
- ② 可變성이 심한 國際石油市場,
- ③ 원거리에 있는 國際石油市場의 불리한 條件을 가지고 있으며,

(2) 國內部門

國內部門으로서는

- ① 精油産業 및 流通業體의 과점 狀態와 모든 費用을 精油業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취약점을 內包하고 있고,
- ② 石油需要의 價格彈力性이 微微하며,
- ③ 石油製品 價格이 電力, 輸送 등 原價와 物價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 ④ 特定産業 및 民生安定的인 고려가 불가피하고,
- ⑤ 國際石油去來의 經驗과 能力이 취약된 制約要因을 안고 있다.

#### 나. 制度改善의 基本方向

이러한 制約要因을 감안하여 油價制度는 原則的으로 市場經濟原理를 導入하여 經濟의 能率과 效率性을 제고하도록 하고 制度改善에 따른 經濟社會的 충격을 減少化하되,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並行, 補完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① 競爭制限 要因을 最少化하여 自律競爭 條件을 造成하여야 한다. 즉 各種規制 事項을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法的 事實의 독점행위를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國內統制 범위의 부담을 공동 配分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國際 原油價의 多變化時는 原油價 平準化制度를 다시 導入하고, 多變化 政策原油는 現行과 같은 別途의 지원조치를 維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② 價格構造의 國際化로 에너지 價格의 中立性을 維持하여야 한다. 즉 에너지 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하고, 精油産業의 經營 및 施設合理化를 圖謀하기 爲하여 産業部門間 價格轉嫁를 止場하고, 財政需要를 勘案, 漸進的으로 油類關聯稅制를 改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또한 需給安定을 爲한 政府의 最終的이고 最少限의 統制, 調整機能을 留保함으로써 需給安定과 價格安定의 基本 課題를 均衡 있게 調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3. 油價管理制度 改善方案

이러한 基本方向下에서 油價管理制度 改善方案을 마련한다면, 다음과 같은 案이 될 것이다.

#### 가. 短期對策方案

原油價 및 換率上昇分의 油價自動反映制 '實施

(1) 內容

變動換率制度下에서의 換率上昇이 適時에 價格에 反映되지 못함으로써 油價引上要因이 累積되므로 原油價 및 換率變動에 따라 油價가 自動 調整되도록 함.

(2) 自動調整時期

油價의 87.7%를 占하는 元貨表示原油價만 油價 1.5% 引上要因 發生時에 自動調整되도록 하고, 殘餘 12.3%는 年1回 調整을 原則으로 하여 油價의 過多 또는 過少反映에 따른 精油社의 損益差異를 調整해 나간다는 骨格이다.

(3) 이러한 油價自動反映制을 '實施할 必要性은 다음과 같다.

- ① 油價의 累積引上要因의 一時反映에 따른 衝激을 緩和하고,
- ② 現在의 統制價格下에서 과생되는 問題點을 일부 해소하고 油價管理制度 改善 以前의 完충단계 役割을 可能토록 하는 것이다.

#### 나. 基本對策 方案

(1) 方案의 內容

事業者(石油精製業者 또는 판매업자)가 油價를 스스로 決定.  
 ○ 獨寡占 폐해가 유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市場自律機能으로 전환.  
 ○ 油價에 대한 政府의 直接規制에서 間接 規制로 發展.

(2) 豫想되는 問題點

이 경우 豫想 問題點을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價格談合 및 生産카르텔을 통한 價格의 不當引上이 우려되고,
- ② 油種間 價格構造의 국제價格構造로의 接近으로 石油化学原料(나프타) 및 民生用製品(經油, 灯油) 價格이 引上될 可能性이 높으며,
- ③ 現物市場 低價製品 導入이 增加할 경우 精油社의 稼働率 低下로
  - 消費地精製主義의 基調가 崩괴되어 長期安定 需給體制의 維持가 곤란해지며,
  - 原油의 長期계약 物量 減少로 安定導入 基盤을 喪失할 우려가 있고,
- ④ 原油의 價格, 質, 輸送거리등이 고려된 特定 産油國 原油만 選好케 되어 原油 導入先 多變化에 애로가 發生하고,
- ⑤ 原價節減策으로 在庫의 最低 水準을 지향함에 따른 精油社의 비축물량 빈약으로 需給安定에 沮害되고,
- ⑥ 製品輸出入에 實需要者 또는 一般商社의 참여로 精油産業의 事業기반에 影響을 초래하며,
- ⑦ 流通조직 신규참여 개방에 따른 기존업체와의 調和를 摸索할 必要性이 대두되고,
- ⑧ 消費者가 多數 分散된 油種 價格의 不當引上이 憂慮되며,
- ⑨ 地域間 價格 差異에 따른 消費者의 불만이 야기될 것이다.
- ⑩ 또한 精油社間 과당 競爭으로 通폐합등 精油業界 질서 개편의 소지가 있고,
- ⑪ 石油類 價格의 수시 變動으로 電力등 公共料金 및 一般物價管理에 애로가 發生할 것 이라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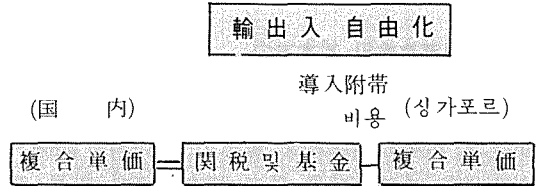
(3) 施行方案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緩和하기 위하여

- ① 段階的 漸進的으로 추진하되, 相關 제도개편을 並行 實施하고,
  - 民生安定 油種(輕油, 灯油)價格은 統制하되 싱가포르 價格에 連動하는 方案을 檢討할 수 있으며,
- ② 價格談合및 不當 引上 防止와 競爭原理間의 調和를 위하여

- 불가항력적 요인(原油價, 換率, 유전스 利子率)의 變動범위 離脫時는 政府가 介入하고,
- 유전스 使用期間은 標準期間(例: 150日)을 定하여 실제 使用期間과 關係없이 適用하며, 판매경쟁, 增設등에 따른 資金壓迫에 의 해 標準期間보다 長期의 유전스 期間을 利用했을 경우, 연장기간의 費用을 油價에 반영하는 것은 인정치 않음으로써 精油社의 책임 經營意識을 고취시키고,
- 原則的으로 石油製品 輸出入自由化를 價格引上을 방지하는 制度的 장치로 하되, 精油産業 事業基盤의 존속을 위하여
- 製品導入關稅 및 基金의 彈力的 運用으로 대처하는 内容이다.

〈例解圖〉



- ③ 또한 國際原油價 多元화시 原油價 平準化 制度를 實施하고, 多변화 政策 原油의 共同配分으로 統制범위외의 海外部門을 共同 부담한다는 原則이다.
- ④ 이와 관련하여 需給 및 제반상황변화에 따른 보완 對策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需給安定이라는 大命題下에서 더욱 檢討되어야 할 課題이다.
  - ㉠ 原油 長期安定 確保 對策
  - ㉡ 油種間價格構造 變化에 따른 補完對策
  - ㉢ 製品輸出入自由化에 따른 補完對策
  - ㉣ 流通構造 改編方向

### Ⅲ. 油種間 價格構造의 改編方向 및 他에너지와의 關聯

이러한 油價政策의 根本目的이 油類를 適正價格으로 供給함으로써 油類需給의 安定을 도모

하고, 나아가서는 電氣, 石炭 및 他에너지 분야와의 調和를 이루는 것이므로 油價管理制度의 改善과 함께 檢討되어야 할 事項은 油種間 價格構造와 價格構造 改編時 他에너지분야에 미치는 影響이라 할 것이다.

### 1. 現行 油種間 價格構造의 評價

#### 가. 價格構造의 特性

現行 油類價格 構造는 經濟運用施策의 일환으로 民生安定과 產業政策 側面을 고려하여, 家計部門 및 特定產業分野에서 需要者負擔이 축소되는 反面 企業部門에 一部 轉嫁되어 있으며, 또한 財政의 擴大를 위하여 租稅부담 등 政府部門費用이 過多한 樣相을 띠우고 있다.

즉 가정의 취사 난방용 油類인 燈油, 버스·철도등 大衆交通用 油類인 輕油, 石油化學 原料인 나프타를 低價로 供給하기 위하여 發電產業用 燃料인 B-C油의 高價策定이 불가피하여 輕質油와 重質油의 價格 差異를 小幅으로 維持하고 있는 實情이며,

승용차 燃料인 揮發油의 高價策定에 따라 代替性이 있는 LPG와 類似揮發油를 製造할 가능성이 있는 溶劑에 대하여 高價를 維持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消費者 價格중 特消稅 등 政府部門費用이 19.8%나 차지하여 전체 油類의 가격압박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 나. 價格 構造의 問題點

이러한 價格構造는 B-C油의 高價로 產業, 發電部門의 에너지 費用 過多를 초래하여 企業 活性化, 輸出증대의 低害要因으로 常存하게 되었으며, 揮發油의 高價로 類似揮發油의 범람을 초래한 바 있다.

또한 油類의 安定的 供給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原油導入先 多邊化가 不可避하나 同對象 原

油가 주로 輕質油의 収率이 높은 高質高價原油이므로, 現行과 같은 輕質油 低價政策 下에서는 多變化 促進의 한계성을 갖게 된다.

더우기, 長期的으로 脫石油政策을 추진함에 따라 發電 및 產業部門의 燃料轉換으로 B-C油 등 重質油 需要가 減少되고, 油類消費構造가 輕質化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向後, 이에 따른 油種間 需給 不均衡이 發生하게 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重質油 分解施設(Cracking)의 건설이 불가피하나 現行과 같은 輕質油 低價, 重質油高價 體系下에서는 施設投資要因이 미흡한 實情에 있어 長期 安定的 需給基盤 造成에 低害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結局 高價商品은 低價販賣하고, 低價商品을 高價로 판매함에 따라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需給의 安定성을 低害하고 있으므로 油價政策의 中立성을 基調로한 油種間 價格構造 正常化의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 2. 油種間 價格構造 改善方向

이러한 觀點에서 油種間 價格構造는 石油의

〈表-7〉 稅前工場源價格의 國際比較

(單位: B-C油를 100으로하였을 경우 상대지수임)

|           | 韓 国 | 페르시아灣(FOB가격) |
|-----------|-----|--------------|
| LPG(프로판)  | 169 | 89           |
| 나 프 타     | 78  | 124          |
| 揮 發 油(보통) | 153 | 145          |
| 등 유       | 134 | 161          |
| 경 유       | 120 | 152          |
| B-C 油     | 100 | 100          |
| 용 제       | 176 | 142          |

〈表-8〉 消費者 價格 比較

(단위: \$/B)

| 구분<br>유종 | 韓 国        |       | 日 本             |       | 臺 灣    |       |
|----------|------------|-------|-----------------|-------|--------|-------|
|          | 세          | 액     | 세               | 액     | 세      | 액     |
| 揮發油(普通)  | 159.03     | 94.27 | 107.40          | 34.45 | 112.23 | 14.33 |
| 燈 油      | 62.75      | 5.14  | 62.38           | -     | -      | -     |
| 輕 油      | 61.46      | 8.93  | 62.90           | 15.56 | 56.14  | 6.54  |
| B-C 油    | 44.54      | 4.16  | 36.98           | -     | 31.60  | 0.83  |
| 原 油      | 세액0.86\$/B |       | 세액0.07-0.41\$/B |       | 無 稅    |       |



長期 安定的 需給基盤구축과 市場經濟原理에 따른 油價管理가 가능하도록 하는 方向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결국 油種間 價格構造는 國際水準에 接近토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油種間 價格構造를 國際水準으로 接近시켰을 경우에는

- Cracking設施의 건설과 原油導入先多邊化가 可能하여 長期安定的 需給基盤이 構築되며,
- 高質品은 高價로, 低質品은 低價로 策定됨에 따라 資源의 效率의 配分을 도모하게 되고,
- 長期的 觀點에서 보아 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와 市場經濟原理에 따른 經濟運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油種間 價格構造의 改善은 현재 우리 經濟, 社會 與件상 常存하는 애로부문인 民生安定 및 石油化學工業 支援 側面과 적절한 調和를 이루면서 國內 經濟全般的인 與件과 全體에너지 政策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長期的, 점진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 3. 他에너지와의 關聯問題

이러한 價格構造 改善으로 LPG 및 B-C 油 價格이 引下될 경우, 他 에너지源 및 油種間 需給에 미치는 影響은 全體的인 에너지 需給의 흐름위에서 必히 檢討되고 넘어가야 할 課題이다. 따라서 이러한 油種間 價格構造 改善方案은 결국 長期에너지 需給計劃의 범주내에서 決定되어야 하며, 이러한 方向은 油種間 價格構造의 改善 方向에 어느 정도의 限界를 부여하게 된다.

첫째로 産業部門에서의 脫石油政策의 일환으로 推進중인 B-C 油의 유연탄 代替使用은 現在 B-C 油價格이 熱量基準으로 유연탄가격의 3 배이상 비싸므로 B-C 油價格을 漸進的으로 引下하더라도 유연탄의 代替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로 輸送部門에 있어서의 揮發油, 부탄, 輕油의 價格은 揮發油 稅前 工場度 및 稅負擔 縮少調整 등으로 低價供給이 가능토록 하여, 輕油의 승용차사용을 止揚, 營業用택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부탄 사용이 可能토록 부탄價格을

(表-9) 石油依存度の 減少 (單位: %)

| 區 分   | 總 에 너 지 |      | 發 電 部 門 |      |
|-------|---------|------|---------|------|
|       | '81     | '86  | '81     | '86  |
| 石 油   | 58.4    | 46.2 | 80.0    | 24.8 |
| 石 炭   | 33.1    | 38.5 | 6.3     | 30.7 |
| 水 力   | 1.5     | 1.2  | 6.5     | 4.5  |
| 原 子 力 | 1.6     | 10.5 | 7.2     | 40.0 |
| 薪 炭   | 5.4     | 3.6  | -       | -    |

(表-10) 油種間需給不均衡推移 (單位: 千B/D)

| 區 分 |     | 1983 | 1984 | 1985 | 1986 |
|-----|-----|------|------|------|------|
| 輕質油 | 需 要 | 250  | 271  | 297  | 313  |
|     | 供 給 | 256  | 252  | 244  | 257  |
|     | 過不足 | 6    | △19  | △43  | △56  |
| 重質油 | 需 要 | 269  | 239  | 219  | 208  |
|     | 供 給 | 263  | 258  | 261  | 264  |
|     | 過不足 | △ 6  | 19   | 42   | 56   |
| 合 計 | 需 要 | 518  | 510  | 516  | 521  |
|     | 供 給 | 518  | 510  | 516  | 521  |
|     | 過不足 | 0    | 0    | 0    | 0    |

調整해 나가되 揮發油와 부탄價格 差異는 점차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가정용 燃料은 현재 순수한 熱量基準으로 比較하여 볼 때 프로판, 灯油, 煉炭의 順으로 그 價格差異가 현저하여 油種間 價格調整時에도 급격한 燃料轉換은 예상되지 않지만, 現在에도 所得이 높아짐에 따른 편의성 때문에 현저한 價格差異에도 불구하고 프로판으로의 轉換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便宜性을 계수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에 대한 심층分析으로, 公害防止 및 快適한 生活 環境造成을 目的으로 86年이후 不足되는 가정용 연료를 充當하고 에너지源을 多元化하기 위한 가스普及擴大 施策과 精油産業및 國內 유일한 부존자원인 石灰産業의 育成과 均衡을 維持토록 誘導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油種間 價格構造는 稅前價格을 國際構造水準으로 점진적으로 接近시켜 國內 油價의 88% 水準을 차지하는 原油費의 價格差異를 反影, 需給安定을 도모하도록 하고, 上記의 全體에너지 需給과의 關聯問題는 稅制改編으로 消費者價格을 均衡있게 維持하여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이다.\*